

안도 타다오 작품에 나타나는 스키야 미학의 수용과 구현방법

장일영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스키(數寄)’라는 미의식은 일본의 여러 시대에 걸쳐 의미와 표현이 변천되어 왔다. 스키란 매력적인, 진기한, 호기심, 황홀함, 여운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관습적인 표준을 넘어서 모험적인 미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의식(송미경, 2005)을 가리킨다. 이러한 ‘스키’는 음(陰)과 양(陽) 두 공간에 놓인 ‘틈’의 공간으로 표현된다. 또한 분리와 연결을 모두 의미하는 이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스키의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여러 설계가들에 의해서 현대적 공간에 접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Ando Tadao: 1941 ~)는 1980년대 일본의 새로운 경향의 공간 디자인을 추구했던 설계가로, 그의 작품은 전통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간구조의 정신과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이경선 외, 2005). 이러한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일본적인 정서가 배어 있는 스키야(數寄屋)의 전통미학과 내외부 공간과의 일체성을 중시한 미의식, 그리고 전통 농가의 단순성에서 찾은 하향식 디자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스키야 미학에서 발견되는 정원과 건물의 일체성, 빛의 다양성, 시간의 추이에 따른 심상(心想) 공간의 전개 등 안도 타다오의 디자인 사고에 매우 중요한 원천(길성호, 2003)이 되고 있다. 즉 안도 타다오의 전통 계승은 형태상의 모방이 아닌 정신과 감성의 계승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전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작품에 수용한 스키야의 구현방법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전통양식인 스키야 미학이 안도 타다오 작품에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문헌자료와 사례작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실제 지어진 그의 작품 중 스키야의 수용방식을 잘 드러내는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 나타난 일본 전통미학인 스키야의 특성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관련 문헌 및 기존 성과물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에 스키야 미학을 현대에 재해석하고 있는 안도 타다오 작품의 구성 원리와 생성과정, 그리고 스키야 미학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그의 작품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II. 스키야의 형성과 배경에 관한 고찰

1. 스키야의 형성

일본 전통미학 중 스키야(數寄屋)라고 하는 통칭은 스키야(好き屋)부터 시초, 후에 여러 가지 문자에 옮겨져 스키야(透き屋)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쓰이다가 현대에서의 스키야는 풍류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出江寛, 1996). ‘스키야’는 글자 그대로 틈의 공간이 있는 집으로 다실(茶室)을 말하며, 혹은 다도의 영향을 받은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통용(桐浴邦夫, 2004)되고 있다. 또한 불교나 노자에서 표면가치에서 발생하는 피상적인 의미를 초월한 ‘空’과 같은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出江寛, 1996). 이러한 특징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무형의 정서적 교류의 장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설계란 형태적이고 시각적이지 않는 형태들 사이의 빈 공간이 중심이 된다.

2. 스키야의 특징과 형성과정

17세기에 와서 서원조 양식과 다도가 행해진 스키야의 특징을 결합한 조형양식인 ‘스키야조’ 양식이 탄생하였다. 서원조는 스키야의 보급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다(김왕직과 이상해, 2002). 서원조의 기본 장식은 스키야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엄격한 형식을 탈피하여 원기둥이나 꺾질이 있는 기둥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벽도 흙 자체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토벽(ひらしきよし, 1980)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원과의 관계에서는 벽에 의해 구획되는 격리된 공간이 아니고, 창호를 떼어내면 주위는 완전히 개방되는 공간이 된다. 정원은 창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실, 툇마루,

정원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스키야조는 우아한 감수성과 날씬한 목조 소재에 장식을 하지 않은 간결함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택, 특히 별장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스키야조는 서원조를 기본적 범위로 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차이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규모는 너무 크지 않고, 지붕의 구배는 느슨하며, 기둥은 가늘고 개방적인 공통된 경향은 인정되지만 세부 수법은 스키야의 잉여적 성격 때문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건물과 경관이 아름다움 조화를 이루는 가쓰라리큐(桂離宮: 1615~1663년)를 들 수 있다. 가쓰라리큐의 중요한 세 개의 건물은 고서원(古書院), 중서원(中書院), 그리고 신고텐(新御殿)으로 이루어졌다(히라시키요시, 1980). 고서원(古書院)은 좀 더 의례적인 서원양식으로 되었고, 나머지 두 곳은 좀 더 원시적인 스키야 양식으로 되었다. 특히 스키야의 대표적 사례로서 가쓰라리큐의 츠키미다이(月見台)는 정원(밖)과 건물(안)의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며, 단절 없이 정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을 지닌다. 이것은 사이 틈의 공간으로서 하루의 시간, 기후의 변화와 이용자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스키야의 특징이 근대공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리구치스테미(堀口捨己: 1895~1984)는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조경가, 건축사, 조원사가, 다도연구자,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日本建築學會, 2008). 그는 일본의 전통문화 안에서 모더니즘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표면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것에서 모더니즘을 찾으려고 하였다. 호리구치가 연구한 일본의 다실 공간은 스키야의 전개 과정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갖는다(堀口捨己, 1978)고 할 수 있다. 호리구치가 '과도기의 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오카다(岡田邸) 주택에는 화(和, 일본)와 양(洋, 서양)의 병립을 볼 수 있다. 즉 오카다 주택은 일본의 전통적 양식과 근대건축이라는 두 개의 모델을 떠맡은 호리구치의 갈등이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가을에 꽃이 피는 풀의 정원으로 유명한데 그에게 있어서 정원은 늘 중요한 존재로 계속되었다. 그가 외쳤던 <비도시적인 것>에 의한 다실과 스키야 미학은 정원과의 연속에 대한 그 의미가 넓어지며, 또 완성되어진 것에 있었다(黒田智子, 2006).

III. 안도 타다오의 설계사고와 의미

안도 타다오는 인간과 환경 상호 신체적 체험을 중시하면서 지역의 전통적 의식과 가치를 가장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고 표현한 일본의 대표적 설계가이다. 그는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미학개념의 비평과 그에 기초한 현대조경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안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설계적 사고의 근원으로서 모더니즘과의 연계를 들 수 있

다. 특히 근대공간의 기하학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추상성은 그의 작품에서 긴장된 벽면, 빛과 그림자 등에서 유사성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지역적인 성격도 강하므로 근대공간과는 다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도가 만들고자 한 공간은 모더니즘적인 공간적 추상성이 아니라 일본인의 깊은 의식 속에서 스며있는 공간적 원형(spatial prototypes)을 의미한다(길성호, 2003). 그러므로 안도의 작품에 추상적 요소는 모더니즘 공간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일본의 지역적 성격과 혼합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IV. 안도 타다오 작품에 나타나는 스키야 미학의 수용과 구현방법

1. 자연과 일체성을 중시한 미의식

안도는 자신의 작품에서 기능의 영역으로만 한정될 수 없는 틈새 영역과 비결정성의 영역들을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관계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안도의 작품은 형태구성에서 '자연-공간-인간'의 관계를 담아서 공간을 완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관계중심의 디자인 사고를 통해 지각적으로 풍부한 체험을 주며, 단순함과 간결함으로 공간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준다.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자연·공간, 자연·인간의 관계에서 시간의 이행에 따른 기대감과 장면의 변화들은 일본 전통양식인 스키야 미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에서 인식되는 자연과는 다른 감성적 의미를 포함하며, 인간의 삶과 자연과의 교류와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손광호, 2006)고 할 수 있다.

특히 안도 작품에 주요 테마가 되고 있는 벽은 '영역적 경계의 장치' 즉, 내부이자 동시에 외부이기도 한 벽의 이중성과 애매성을 담고 있다. 또한 안도가 사용하는 자연/인간, 자연/건축의 관계에서 시간의 이행에 따른 기대감과 장면의 변화들은 일본 고유의 다실풍의 전통공간이 만들어 낸 스키야 미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는 스키야 미학에서 나타나는 담장으로 분절되어 지각되는 공간, 시간의 이행에 따른 장면의 중첩, 폐쇄된 공간과 조망으로 개방된 공간의 전개 등 다양한 수법들을 사용하였다. 안도의 작품에서는 회화적 장면을 공간 속에 도입하는 방법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원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적인 벽, 프레임이나 기둥을 이용하여 조망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도는 스키적인 정신을 통해 공간구성요소를 응축되고 절제되게 표현하여 단순화시켜 그 안에 담겨지는 공간에 의한 표현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김동영, 2006). 특히 빛의 교회(Church of the Light)에서는 목사가 선 위치의 배후에 십자가를 묘사한 틈새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계절의 변화 시간에 따라 신체의 감각을 통해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2. 자연재료의 추상화

안도는 작품 구성의 소재로 나무나 콘크리트 같이 가시적 형태의 물리적인 재료뿐 아니라, 신체의 감각에 호소하는 빛과 바람 등과 같이 비가시적인 자연 요소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에게 빛과 바람 등은 그것들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형태의 내부로 도입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안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일본의 전통 공간의 상징적 표현을 위해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적 재료들인 창을 통해 제공된 빛과 공기의 흐름, 소리 그리고 콘크리트 벽들과 나무마루들의 사용과 함께 이러한 특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변태호, 2004).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도의 노출콘크리트 벽과 자연나무 마루의 채용은 단순성과 기하학적 구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스키야, 즉 일본의 전통적 미학정신에 기초한 형태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단순성의 강조는 일본의 전통적인 스키야의 미학이 계승되어 다시 형태와 공간의 구성에 있어 모든 부수적인 사물들의 제외, 자연재료에 대한 관찰, 단순한 형태구성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의 구축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특히 안도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중정의 비어있음이나 마치 껍질을 벗겨버린 듯한 노출의 벽 표현은 이러한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변태호, 2004).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고시노 하우스(Koshino House)의 건물의 내부는 자연광이 교묘하게 배치된 천장과 벽의 틈새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되어 콘크리트의 차갑고 무거운 물성을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며 자연을 실내로 이어준다(이경선 외, 2005). 빛에 의해 부각되듯 빛나는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치 전통공간의 장지 표면의 얇은 종이를 상기 시킨다. 그 결과 일본의 전형적인 다실의 내부 공간과 스키야적인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3. 시간의 추이에 따른 심상(心想)공간

안도의 노출된 콘크리트 벽은 빛을 조절하기 위한, 스크린이나 빛을 표상하기 위한 장치로 배열되어 공간에 비 물질성을 부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공간에 도입되어 신체의 감각에 호소하는 빛, 바람 등 자연 요소들은 벽으로 한정되는 공간의 현상적 지각을 더욱 풍요롭게 함으로써, 안도가 추구해 온 '정서에 바탕을 둔 공간'을 위한 장치로(길성호, 2004) 사용되고 있다. 그의 작품 중 물의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크기의 정방형 평면을 겹쳐 인공 호수에 면하여 배치하고 이것을 둘러싸는 벽을 L자형으로 세워 경계를 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건물을 돌면서 긴 벽을 따라 접근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동선을 회유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직접적

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물과 자연의 풍광에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교회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양한 풍광을 만들어 내는 자연의 변화를 끌어들인다(길성호, 2004).

V. 결론

안도의 디자인 사고에는 스키야 미학에서 발견되는 자연과 일체성을 중시한 미의식, 자연재료의 추상성, 시간의 추이에 따른 심상공간의 전개 등이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안도의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상화된 자연을 도입하고자 한 것은 자연과 친숙하게 연결되어 열려 있는 일본 전통 공간의 특성을 현대 사회의 상실된 공간 속에 회복시키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건물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안도에게 빛과 바람은 그것들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형태, 즉 작품의 내부로 도입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의 작품에 있어서 스키야 미학은 인간과 환경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며, 이러한 미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신을 채용하고, 새로운 전체성의 이론을 창조하여 작품이 그 환경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스키야는 완전한 의식의 발현으로 축조되어 발전·진화한 것이 아니라 설계가 각자의 세계관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키야는 개인적 경향 부동성(不動性)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촉매의 힘을 가진 것으로, 기존의 형태를 넘으려는 개인의 창조적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도는 스키야 미학의 현대에서 소생은 스키야 정신에 입각하면서 새로운 전체성 논리에 의해 환경에 대응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용문헌

1. 길성호(2003)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서울: 시공문화사.
2. 길성호(2004)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안도 타다오와 스티븐 홀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4).
3. 김동영(2006)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 표현된 일본 전통적 요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6).
4. 김왕직, 이상혜(2002) 일본주택 和室의 形成科程과 現代의 變容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1.
5. 변태호(2004) 신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안도 타다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3(2).
6. 손광호(2006) 현상학적 공간개념과 체험요소로서의 물의 성격 -스티븐 홀과 안도타다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디자인연구소 5.
7. 송미경(2005) 일본의 전통다실의 변천과 현대 화풍 실내양식의 변용에 관한 연구 -현대 화풍 공간디자인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경선, 변태호, 서기영(2005)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지역주의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텍토닉적 표현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1).

9. 堀口捨己(1978) 書院造りと數奇屋造りの研究. 鹿島出版會.
10. 桐裕邦夫(2004) 近代の茶室と數奇屋. 淡交社.
11. 日本建築學會(2008) 建築論事典. 章國社.

12. 出江寛(1996) 數奇屋の美學. 鹿島出版會.
13. ひらしきよし(1980) 日本住宅の歴史. 學芸出版社.
14. 黒田智子(2006) 近代日本の作家たち. 學芸出版社.